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2. 30 (화)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 수신 금리, 저축은행보다 높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
조선일보 https://zrr.kr/5jqGIx

은행이 각종 특판 상품을 내놓는 반면 저축은행은 고금리 예금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가 저축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모습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연 2.75%로 1금융권 은행의 전체 예금 금리 및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연 2.78%)보다도 낮아지며 은행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을 역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3년 더 이끈다
아시아경제 https://zrr.kr/lntJks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사실상 연임에 성공하며 2029년 3월까지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 예정
임 회장은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프로젝트, 증권·보험 포트폴리오 기반 발전, AX 거버넌스 확립, AI 전환 노력 가속화와 주주가치 제고,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에 혁신을 약속

술술 뚫리는 금융사 정보… 당국, 정보보호 책임자 권한·책임 강화한다
조선비즈 https://zrr.kr/Agbj6i

금융위는 디지털금융보안법을 통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게 타 부서 보안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CISO의 영향력을 강화해 금융사 내부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함

대출이자 초과분, 원금상환에 쓴다… 신한은행, 선순환 포용금융 가동
머니S https://zrr.kr/tzkERw

신한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1월 말 시행할 예정
이번 프로그램은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포용금융 분과의 첫 정책으로, 고객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해 부채 총량을 줄이는 구조가 핵심

"금리 5%라길래 열어봤더니"… 파킹통장 조건에 지친 돈, CMA로 이동
세계일보 https://zrr.kr/ETJlz3

파킹통장의 조건 피로도가 커지면서 일부 자금은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동
CMA 잔액은 이달 23일 기준 100조6561억 원으로, 7월 말(90조8273억 원) 대비 약 9조8300억 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CMA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

KB증권, 소비자보호·연금·IB 전면 재편…'디지털 퍼스트' 조직으로 전환
글로벌이코노믹 https://zrr.kr/n8WHMH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생산적 금융 중심의 사업 전환과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체계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실시
연금과 패밀리오피스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IB·S&T 조직을 재정비해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한다는 전략

신규담보 손해율 타격 보험업계, 혁신 저해 '우려'
이데일리 https://zrr.kr/LNRXn5

보험업계가 금융당국의 신규담보 손해율 (최소 90%) 적용을 두고 보수적 기조가 감지되며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
암·뇌·심장질환 등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신규담보를 잇달아 선보였지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혁신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

초대형GA, '3차년도 인센티브' 요구에…보험사 "제도 취지 어긋나" 난색
전자신문 https://zrr.kr/ZdMV7T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초대형 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에 추가 인센티브(시상·시책) 신설을 요구하고 나서
수익 축소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보험사들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무과실배상 등 담길 듯…제출은 새해로
연합뉴스 https://zrr.kr/stzxgA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
다만 정부안 제출 시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등 관계기관과 이견이 있는 주요 쟁점의 벽에 부딪혀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진 모습

100만원 이하 가상자산 거래도 '실명제' 추진한다
이코노미스트 https://zrr.kr/DK0i0o

가상자산 이전 시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